

## News

### 외국계 은행 탈한국 행렬...공허한 글로벌 금융허브의 꿈

아주경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는 기업금융에 주력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지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소매금융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해 국내 사례와 크게 대비 금융위의 배당 삭감 지시,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게 한 키코(KIKO) 사태, 한국씨티은행의 노조 문제 등 한국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지적되고 있다.

### 아주산업 보유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우리금융에 전량매각

연합뉴스

우리금융캐피탈은 아주산업이 갖고 있던 우리금융캐피탈 지분(12.85%)을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게 지난 15일 장 종료 후 전량 블록딜(시간 외 대량거래) 방식으로 매각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은 86.9%로 상향.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 보유. 우리금융캐피탈은 그룹 내 자회사와 협업해 서민금융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 금융지주사, 씨티그룹 철수 동남아 소매금융 인수 추진하나

뉴스1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철수 해외사업장에 대한 인수에 나설지 주목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 직속의 M&A 담당 부서가 씨티그룹의 동남아 지역 철수설이 불거진 후 현지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다른 금융지주 역시 기초 인수 작업 착수

### 또 어떤 규제... 금융권 댄신 'L의 공포'

서울경제

금융권에 'L(Law·법)'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사를 옥죄는 법과 시행령만 쏟아내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분위기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 금리 인하(연 24%→20%)로 인한 수수료 수입 축소, 금융사로의 불안전 판매 입증 책임 전가,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금소법 등이 'L의 공포'를 부각

### DB손보, 삼성화재 턱밑 추격... 올해 '장기인보험 시장' 뜨겁다

머니S

지난해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났던 DB손해보험이 올해 1분기 초회보험료를 크게 높이며 1위인 삼성화재와 격차를 6억500만원까지 줄였다.  
삼성화재가 수익성 강화에 집중한 사이 DB손보는 사고와 질환에 따른 재할과 소득보장 중점 보장 전용보험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을 출시하는 등 상품 다양화로 실적을 개선

### 1분기 ELS 발행액 19조원...전분기보다 32% 줄어

조선비즈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ELS 미상환 발행잔액이 55조77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직전 분기 대비 9.1% 감소  
이 기간 ELS 발행 금액은 총 18조80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31.9%나 줄었다.

###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해달라

매일경제

손해보험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처벌 강화, 비급여 의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감독국의 협조를 요청  
19일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 업계 현안 논의. 보험업계에서는 정지원 손보협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등이 참석

### 개미 공매도 대여규모 2.4조 100배 늘어난다...상환기간 최장 60일

뉴스1

5월3일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가 종전 205억원에서 2.4조원 수준으로 약 100배 늘어날 전망  
이달 20일부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의 시스템이 가동된다. 개인은 대주(주식 대여) 상환기간은 60일로 정해졌고, 증권사는 대주 금액의 50%만 신용공여로 인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